

# 취업 우선·무관심·불신…외면받는 총학생회 선거

투표율 저조에 전남대 재선거…조선대, 이틀간 연장 투표  
대학가 '민주주의 실종' 우려…학생 스스로 관심 기울여야

광주 지역 대학 총학생회 선거철이 됐지만, 학생들의 외면으로 투표율이 저조한 상황이 올해도 반복됐다.

전남대는 온라인 투표를 도입하고 1시간 간격으로 투표 득려 문자를 반복 전송했지만 절차상 하자가 발견돼 재투표를 앞두고 있고, 조선대는 최소 투표율 50%를 맞추기 위해 이틀 간 연장투표를 하는 등 투표율을 끌어올리려 애간장을 쓴 모양새다.

전남대는 8일 '2026년 전남대 학생회 선거 재선거'를 치르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온라인 투표로 선거를 치른 이후 선거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1차 투표 당시 학생들은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온라인 투표 링크 3개를 전달받고 총학생회장, 학과(부), 단과대학장 등 3명을 투표했다. 전체 재학생 1만 5087명 중 5470명이 참여해 최종 투표율 36.25%로 투표를 마무리해 전남대 선거 기준 투표율 33.3%를 겨우 넘겼다.

하지만 온라인 선거 과정에서 'OTP 인증(등록 명부에 대한 전화번호 인증)' 절차가 적용되지 않아 학생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투표가 되는 시스템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절차적 문제가 확인돼 결국 재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전남대 학생처는 36% 수준의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만도 쉽지 않았는데, 2차 투표에서도 그만한 투표율을 장담하기 어렵다며 난감해 하는 눈치다.

앞서 전남대 학생처는 1차 투표 당일 1시간 간격으로 전교생에게 투표 득려 문자를 '스팸 문자' 수준으로 반복 전송하고 학생들도 캠퍼스 곳곳에서 현수막, 학동연설, 카드뉴스 배포 등 갖가지 투표 득려 활동을 했다. 그럼에도 전교생의 3분의 1 수준의 투표율을 넘기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전남대는 과거에도 투표율을 끌어올리려다 실패한 사례가 잦았다.

2020년에 치러진 '2021년 학생회 선거'에서는 '투표하면 선물을 준다'는 이벤트를 시행해 62.09%로 투표율을 높였지만, 금품 제공이 선거법상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보궐선거 투표율은 44.04%로 떨어졌다. 이후 전남대는 2021년 선거 시행 세칙을 개정해 개표 기준 투표율을 50%에서 33%로 낮췄다.

이후로도 전남대에서는 2022년 33.70%, 2023년 36.39%, 2024년 41.91% 등 매년 과반을 넘지 못하는 투표율이 반복됐다.

조선대도 비슷한 상황이다. 조선대는 개표 기준이 되는 투표율을 넘기지 못해 3년 연속 연장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조선대는 지난 2일 각 단과대학 정문에 투표소를 마련하고 총학생회와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를 실시했으나, 투표율이 37.36%에 불과했다. 조선대 선거 시행 세칙은 전체 유권자 중 과반수(50%) 이상 투표했을 때 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15일동안 연장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결국 조선대 중앙선관위는 지난 3일까지 연장투표를 진행한 끝에 투표율 51.02%를 겨우 넘겼다.

투표율이 저조한 것은 다른 지역 대학도 비슷했다. 올해 치러진 학생회장 선거와 관련, 대구 경북 대를 비롯한 전국 국립대 중 3곳이 총학생회가 꾸려지지 못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투표율이 저조한 이유로는 대학생들은 취업을 우선시하고 있어 학생 자치기구에 큰 관심이 없고, 학생회에 대한 불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조선대 이명 커뮤니티에는 선거 전부터 '투표 거부해라', '투표 피하는 방법' 등 선거 참여를 거부하는 분위기를 보여주는 글들이 잇따라 게재되기도 했다. 현실성 없는 공약만 내놓는데 대학생 활에 별 영향을 받은 경험도 없고, 획형 등 안 좋은 소식만 들려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학 측은 학생 자치활동이 학내 참여 문화를 지탱하는 기본인 만큼,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 교수는 "학생들이 학생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없고, 학생회는 학생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등 학생 대표 기구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며 "학생들 스스로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하나의 장이라고 인식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준영 기자 yoon@kwangju.co.kr



e스포츠 승자는? 6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전시관에서 열린 제3회 광주 북구청장배 전국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발로란트 결선 게임을 치르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전남국제농업박람회 운영·홍행 '낙제점'

전남도 경영평가서 출연기관 중 유일 '마' 등급…교통 지옥·체질 개선 나설 듯

국제농업박람회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전남도 국제농업박람회(이하 재단)가 전남도 경영평가에서 최하위인 '마'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농업박람회는 고질적인 교통,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전남도의회도 '국제' 박람회라는 이름이 무색하다는 지적을 쏟아내면서 박람회 운영에 대한 체질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7일 전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전남도는 2024년 실적을 토대로 올해 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의 경영평가 결과를 '마' 등급으로 결정했다. 전

남도는 17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경영평가를 추진하는데, 재단은 17개 기관 중 유일한 '마' 등급을 받았다. 나머지 기관은 '나' 등급이었다.

전남도는 "박람회 국내외 유치 분야의 계획 수립 및 수행 노력의 운영 수준이 보통이었으며, 환류 수행의 적절성 역시 보통 수준에 머물렀으므로, 전반적인 기획 및 실행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남도는 경영평가 결과로 성과급과 출연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재단은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에 처했다.

전남도의회도 최근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도 재단 예산을 6억1750만원으로 결정했다. 재단이 제출한 예산(8억원)보다 1억 8250만원 줄어든 금액으로, 낮은 경영평가를 기록하고 박람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잇따르는 점 등을 반영했다.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올해 국제농업박람회는 운영과 홍행 성적 모두 낙제점을 받았다"며 "내년도에 있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조직 개편을 비롯,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전남 2곳 '농촌서 살아보기 우수사례' 선정

진도 남도전원한옥마을·장성 별내리마을

진도 남도전원한옥마을과 장성 별내리마을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 마을로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전국 7개 시·도 18개 마을을 중 서면 심사를 통과한 상위 5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 심사 결과, 우수상 수상 마을로 진도 임희면 남도전원한옥마을을 선정했다. 장성 별내리마을은 입상 수상 마

을로 꼽혔다.

진도 남도전원한옥마을은 지난 2013년 조성된 마을로 주민의 80%가 도시 출신 귀촌자로 구성됐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전남도가 2019년 전국 최초로 추진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가 2021년 신규사업으로 벤치마킹해 전국으로 확대됐다.

/김지율 기자 dok2000@kwangju.co.kr

## 보이스피싱 대응단 효과…출범 2개월만에 범죄 줄어

지난 9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출범한 이후 2개월간 보이스피싱 범죄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월과 11월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각각 1226건, 161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8%, 26.7% 감소했다. 피해 액도 지난 10월과 11월 각각 699억원, 764억원으로 전년 대비 22.9%, 35% 줄었다.

통합대응단이 출범하기 전인 올해 9월까지 총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각각 28%, 90.7% 증가했

던 것과 비교하면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게 경찰청의 분석이다.

법정부 차원에서 보이스피싱에 총력 대응하는 통합대응단은 경찰청·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 인력이 함께 근무한다.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 올해 일평균 상당·제보 응대율은 기준 62.9%에서 96.4%로 증가했고, 전화번호 차단은 243건에서 1124건으로 363% 증가했다.

/연합뉴스

## 아침 영하권 추위 지속

광주지방기상청은 8일 아침 최저기온은 2~7도, 낮 최고기온은 8~11도를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9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3~1도로 전날보다 5도 이상 기온이 떨어져 춥겠다. 낮 최고기온은 8~12도가 예상된다. 10일에도 아침 최저기온 영하2~3도, 낮 최고기온은 11~13도 등 낮·밤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고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11일부터는 기온이 올라 아침 최저기온은 3~8도, 낮 최고기온은 11~14도에 분포하겠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 광주문화신협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협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